

역대급 암말 실버울프 '세 토끼 사냥'

- 1 우승 땀 최우수마 포상금 1억 원
- 2 역대 2번째 최우수마 2차례 수상
- 3 대상경주 최다 우승 단독 선두로



당대 최고의 암말 실버울프(사진)가 경상남도지사배 우승과 퀸즈투어 시리즈 2연패에 도전한다. 2019년 6월 독섬배 우승 당시 실버울프와 우승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한국 경마 사상 최고의 암말이라고 평가받는 실버울프(암, 7세, 호주, R125)가 세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실버울프는 20일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부산경마공원에서 열리는 제15회 경상남도지사배(GⅢ, 2000m, 3세 이상, 암, 산지혼합, 오픈)에 출전한다. 총상금 5억 원인 퀸즈투어 시리즈 마지막 경주로 시리즈 최우수마 포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이 가려진다.

한국마사회는 조건별 우수마 선별을 위해 서울과 부경에서 6개의 시리즈 경주를 운영한다. 퀸즈투어 시리즈는 3세 이상 암말들만 출전해 여왕마를 가리는 시리즈다. 지난해까지 출전 조건이 5세 이하 암말이었으나 올해 바뀌면서 2017년에 퀸즈투어 시리즈 최우수마를 차지했던 실버울프가 또 나섰다.

실버울프는 퀸즈투어 시리즈인 독섬배, KNN배를 포함해 올해 출전한 4번의 경주를 모두 우승해 상금 8억8000여 만 원을 획득했다. 경주마로서 고령이라고 할 수 있는 7세지만 더욱 실력이 무르익어 올해 퀸즈투어 시리즈에서도 가장 유력한 최우수마 후보다.

실버울프가 경상남도지사배를 우승한다면 각종 기록을 세우며 커리어의 최

고 정점을 찍는다. 퀸즈투어 시리즈가 시작한 2012년 이후 감동의바다에 이어 최우수마 2연패를 한 두번째 말이 된다. 또한 대상경주 5연승이면서 동시에 11번째 대상경주 우승컵에 대한 도전이다. 실버울프는 현재 당대불패와 함께 대상경주 최다승 기록 공동 1위(10승)다. 이번에 우승한다면 단독 선두로 올라가게 된다.

실버울프는 2017년부터 암말 대상경주에서 1위를 놓쳐본 적이 없다. 지난해 경상남도지사배 준우승마 서울의별(암, 4세, 한국, R74), 3위 담양환호(암, 5세, 미국, R90), 5위 골드블루(암, 6세, 일본, R81)가 다시 출전에 맞붙지만 실버울프의 적수가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경주마의 능력을 수치로 환산한 레이팅만 해도 실버울프는 125로 경주마의 평

균 레이팅 74.5를 크게 앞선다. 1 실버울프의 송문길 조교사(40조)는 "데뷔 때부터 지켜보면서 여왕으로 성장해온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우승을 나누는 기쁨이 남다르다. 7세임에도 여전히 좋은 컨디션과 실력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116경주' 11월 서울 경마 일정 발표

11월 서울 경마 시행 계획이 발표됐다.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 동안 116개의 경주가 펼쳐진다. 토요일에는 서울 시행 12개, 제주 중계 7개를 발매한다. 30일에는 서울 경주가 하나 늘어 서울 시행 13개, 제주 중계 6개가 펼쳐진다. 일요일에는 서울 시행 11개, 부경 중계 6개가 발매된다. 11월 3일 국산마 한정 대상 경주 중 최고 총상금 8억 원이 걸린 대통령배가 2000m 장거리 경주로 열린다. 10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23일에는 과천시 장배가 개최된다. 첫 경주는 오전 10시 45분, 마지막 경주는 오후 6시에 출발한다. 서울 경마공원 입장은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말박물관 '암행어사 일일체험' 행사

한국마사회 말박물관은 과천시 추사박물관과 함께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과천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사와 함께하는 암행어사 일일체험'을 진행한다. 말박물관이 학생들에게 말과 관련된 청렴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개발해 운영 중인 '암행어사'와 '역마' 프로그램에 한 때 암행어사였던 추사 김정희의 활약을 소개하는 내용이 결합됐다. 역마를 징발할 때 사용되는 마패의 모양과 종류를 살펴볼 수도 있다. 전국의 역 지도를 보고 각 지역에 파견된 암행어사가 되어 탐관오리를 조사하고 신고하는 상소문 작성을 체험한다. 평일 학급 단위로 신청을 받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마사회 말박물관(02)509-1275)으로 하면 된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누군가의 레이스'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말박물관, 올해 5번째 초대작가전
표영은 작가 '경쟁사회' 고민 답아

한국마사회 말박물관의 올해 다섯 번째 초대작가전인 표영은의 '누군가의 레이스'가 18일 개막한다.

말박물관은 매세나 활동과 마문화 보급을 목적으로 매년 공모와 심사를 통해 5명의 작가를 선정해 전시 공간과 홍보를 지원하며 초대작가전을 개최한다. 사회적 이

슈에 관심을 갖고 작품 제작과 전시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표영은 작가의 전시를 끝으로 올해 한 해 동안 펼쳐온 초대전 레이스를 마무리한다.

'누군가의 레이스'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경쟁사회에 대한 젊은 작가의 시선을 읽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출품된다. 표영은 작가는 경주마가 개인의 욕망이 분출하는 현대 사회에서 피로를 풀기 위한 유토피아적 여가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관람자가 되는 순간 다시 간접

적인 경쟁에 빠지게 되는 모순에 주목했다. 무한 경쟁의 사회 즉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공간 역시 현실과 다르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단순히 현실에 대한 절망이나 회피가 아니라 관객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화폭에 그려진 경주로, 예시장, 경주마 그리고 관중의 모습은 합성이나 흥분, 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고요와 정적이 감돈다. 특유의 동양적 필선과 낮은 채도의 색조는 유화임에도 수채화나 동양화에서 볼 수 있는 사색적 분위기를 풍긴다.

링 빈 경주로, 앞서 달려 나가는 경주마의 모습도 여가의 이면에 있는 경쟁의 그늘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무의식중에 스스로를 과도한 경쟁에 몰아넣으며 휴식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자는 작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번 전시는 12월 15일까지 계속되며 SNS를 통해 리뷰를 남기면 귀여운 말 미니 어치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정기회원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박물관 입장은 무료지만 경마일인 금요일부터 일요일에는 경마공원 입장료 2000원을 내야 한다.

정용운 기자



축구팬 81% "토틀넘, 왓포드 잡는다"

축구토틀 승무패 35회차 중간 집계
K리그전 "전북, 포항전 승리" 69%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트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틀(www.ktoto.co.kr)가 오는 19일(토)부터 21일(월)까지 벌어지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8경기과 국내프로축구(K리그) 6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틀 승무패 35회차 토틀넘-왓포드(9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81.36%가 홈팀 토틀넘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팀의 무승부 예측은 11.24%로 나타났고, 원정팀 왓포드의 승리 예측은 7.4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토틀넘은 현재 승점 11점(3승2무3패)로 리그 9위를 기록 중이고, 왓포드는 승점 3점(3무5패)으로 최하위인 20위에 주저앉아 있다. 토틀넘은 이번 시즌을 시작한 후 줄곧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다 할 전력 보강에 성공하지 못한 토틀넘은 에릭 센과의 마찰까지 겹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개막전인 애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3-1의 승리를 거두며 산뜻한 출발을 신고했지만 이후 뉴캐슬, 레스터, 브라이턴에게 패하면서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안방에서 뉴캐슬을 맞이하는 첼시의 승리 예측은 83.30%를 기록해 이번 회차에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양팀의 무승부 예측과 뉴캐슬의 승리 예측은 각각 10.33%와 6.37%로 나타났다.

K리그에서는 리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이 포항을 물리칠 것이라는 예상이 68.63%를 차지해 K리그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선보였다. 양 팀의 무승부 예측은 18.98%를 기록했고, 리그 5위에 위치해 있는 포항의 승리 예측은 12.39%로 나타났다. 대구(19.44%)와 경남(23.41%)은 동일하게 40%대의 투표율을 얻어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력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승무패 35회차는 19일(토) 오후 1시5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WKBL 개막전, 농구토틀 W매치와 함께

KEB하나-BNK전 대상 61회차 발매
KB스타즈-신한은행전 대상 62회차

'돌아온 여자프로농구, 체육진흥투표권 농구토틀 W매치가 함께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트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틀(www.ktoto.co.kr)가 19일(토)에 펼쳐지는 국내 여자프로농구 WKBL 개막전을 시작으로 농구토틀W매치 61회차와 62회차를 연속해서 발매한다.

첫 회차인 61회차는 19일 오후 5시에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막 경기 KEB하나-BNK 썸전을 대상으로 발행되며, 경기시작 10분전인 오후 4시50분까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이어지는 62회차는 다음날인 20일 오후 5시에 청주체육관에서 벌어지는 KB스타즈-신한은행전을 대상으로 하며 역시 경기시작 10분전까지 구매할 수 있다.

올 시즌의 경우 디펜딩 챔피언 KB스타즈의 연속 우승 여부와 왕좌를 되찾으려는 우리은행의 반격, 그리고 새롭게 리그에



뛰어난 BNK 썸의 활약까지 다양한 변화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농구팬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토틀빙상단 최재봉 코치 1등급 체육훈장 '청룡장' 수상



최재봉 수석코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트의 수탁사업자 (주)케이토틀이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토트빙상단의 최재봉 수석코치가 체육발전유공자 훈장인 청룡장을 받았다. 스포츠토트빙상단은 15일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제57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 최재봉 수석코치가 그동안 대한민국 빙상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등급 훈장인 청룡장을 포상 받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스포츠토틀빙상단의 최재봉 수석코치는 "그동안 나를 믿고 응원해준 동료들과 소속팀인 스포츠토트빙상단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속팀 선수들의 성장에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빙상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